시 론

겨울 산중에서 혼자 맞는 밤은

박 노 식
시인·시앤영 원장

마당 한 편에 서 있는 키 큰 뽕나무 한 그루는 고행의 수도자처럼 몹시 말랐다. 바람이 없는 시간에는 깊은 사념에 잠긴 듯 나무는 고요하기만 하고 저물녘엔 그 깡마른 나뭇가지를 보면서 절대고독을 읽는다.

불과 며칠 사이에 수만 장의 불그스름한 잎들이 모두 져서 사위가 환하고 깊어졌다.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 보는 눈도 상쾌해진다.

하지만 저 나무는 지난여름에 초록의 물결 속에서 새들과 함께 노래하며 꿈을 꾸었다. 근심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명랑했던 잎들이 어느 날 문득 가을이 찾아와서 당황한 나머지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그래서 결국 짧은 기간에 사색만 남기고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조금 빈 것은 아름답다. 틈이 있어서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부족한 듯하여도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서 기분을 살짝 들뜨게 한다.

울창한 잎들이 사라진 후에 드러난 가녀린 나뭇가지 사이를 보면 막힌 숨통이 터지고 지혜가 돌아오고 용서의 마음이 새록새록 돋아난다. 이해도 이와 같아서 조금의 빈틈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통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겨울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한다. 타인을 향한 시선이 오롯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 머물 때 이것은 가능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자신의 영혼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다.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볼 때 희끗희끗한 곳은 모두 빈 곳이다. 그곳에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게 하는 묘한 헛헛함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혹여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이가 있다면 오직 겨울을 기다려 겨울 산에 눈을 주거나 겨울 산에 말을 걸면 한결 나아질지도 모른다. 겨울 산을 향하여 한껏 악을 써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겨울 산은 앓는 사람을 치유할만한 격을 갖추었다. 왜? 비어있으니까.

필자의 지인 중에 유독 겨울을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밀어내는 법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몸에 배어서 친근한 미소를 지녔다. 한데 그 미소 속에 슬픔이 고인 것을 타인들은 모르지만 필자는 안다. 미소는 정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켜 있을 때 읽어야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겨울 산이 이와 같다. 감추지 못하니까.

머잖아 폭설이 내리면 산중 마을은 고라니의 눈망울처럼 순해져서 고요 속에 들고 강아지 몇 마리만 골목을 뛰놀 것이다.

적설을 머리에 인 노송은 밤새 그 무게를 못 이겨 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새벽녘에 들려준다. 대숲은 서서히 눈의 무게를 받고 그대로 허리를 굽힌 채 일어나질 못한다. 큰 대는 오히려 위험해서 부러질 때 "쩌억" 소리를 낸다. 산중은 그만큼 비어서 고요와 적막의 거처가 된다. 이럴 때는 정지용(1902-1950)의 〈장수산 1〉을 음미하는 맛이 있다.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랸다? 윗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랸다 차고 올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

*벌목정정: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벌목(伐木)' 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쩡 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올연히: 홀로 우뚝하게.

겨울 산중에서 누구도 없이 혼자 밤을 맞고 살아가려면 밖에 귀를 주어야 한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솔바람 소리와 댓잎 부딪는 소리.

기 고

변화의 파도 속,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적극행정'

손 명 도
해남군 부군수

우리 지역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며, 기후와 산업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은 군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이제 절차만을 따르는 행정으로는 군민이 느끼는 불편을 제때 풀어드리기 어렵다. 해남군이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공직자가 함께 고민하는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적극행정이 있다.

해남군의 적극행정은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된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살펴보고, 제도의 울타리를 넘어 실질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 해남군이 실천해 온 적극행정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

일례로 올해 해남군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개선이 있다. 시설 특성상 악취와 반복되던 설비 고장이 잦았는데, 이물질 혼입이 주요 원인이었다.

어느 지역 시설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해남군 현장 근로자들은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직접 철판을 자르고 용접해 이물질 제거장치를 고안했다. 여기에 자력선별기와 거름망을 더하는 아이디어가 더해져 놀랍게도 매년 40건 넘게 멈춰섰던 기계가 단 한건의 고장도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성능이 개선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214톤의 퇴비는 모두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품질의 퇴비를 받아든 군민들의 반응도 더욱 좋아졌다. 현장에서 찾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 순간이었다.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선택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전광판으로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지 정보를 공개했을 뿐이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었고, 오해와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한 조치였다.

해양 환경을 위협하던 폐스티로폼 부표 문제도 현장에서부터 개선을 시작했다. 이동식 감용기를 도입해 직접 연안에서 압축·감용을 하게 되면서 부피는 1/90로 줄었고, 줄어든 폐스티로폼은 각종 자재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의 모범 사례가 됐다. 해남군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연간 2만여kg을 처리해 약 6억원의 비용도 줄이고 있다. 어업인들이 스스로 부표를 반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또한 소중한 변화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사람을 향한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 두려움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행정이다. 문제를 피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마음, 군민의 걱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공직자의 태도, 그리고 환경 보호에 함께해 준 군민들의 실천이 모여 해남군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적극행정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익숙한 방식을 잠시 내려놓을 용기를 갖는 것이다. 혹시 잘되지 않더라도 다시 시도해 보는 마음, 그것이 적극행정의 본질이다.

해남군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면책제도와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사례 인센티브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혹시 책임을 지게 될까"라는 걱정 대신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제도나 장비가 아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 군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고민한 공직자들, 그리고 함께 변화를 이뤄 주신 군민들이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해남군을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며, 더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도 해남군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계속 움직이겠다. 군민 여러분의 믿음과 참여가 해남군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독자투고

'노쇼 사기' 주의보…관공서 절대 구매대행 요구 안 해

최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각종 재화나 용역 계약을 미끼로 물품 대리 구매를 추가로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4천506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만 737억원에 달한다. 피해 자영업자들 또한 음식점, 숙박업, 골재업, 토목공사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대부분 군청이나 교도소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점이다. 피해 금액이 고액이라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교활한 범죄자들의 수법에 넘어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습이 안타깝다. 더 큰 문제는 범죄 조직들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 같은 각종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범죄자가 이용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관공서는 절대 민간에 구매대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런 사기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최소한 유사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면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피싱 범죄는 한번 당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 예방만이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상담받길 바란다.

〈김병석·장흥경찰서 수사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시대 과제 광주·전남 특별연합 실패 책임 감당해야

연내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얽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연합)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 추진하는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선도 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1호 공동사무로 설정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부응해 SOC 확충, 전략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속도를 내왔으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지난 8월 말 설립을 공식화 한 이후 다음달 기획단을 구성했다. 곧바로 10월에는 규약(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았고 전남도가 편성한 분담금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대로 연말을 넘기면 민선 9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사코 반대하는 도의회는 광역연합의 필요성 논란,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 개발 수혜 도시권 편중 우려 등을 꼽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확장하는 등 시·도의 준비가 부족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다.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도가 도의회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지를 둔 만큼 대타협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특별광역연합은 호남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다. 실패할 경우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도 규약안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적극적이다. 도의회는 절차 지연에 따른 명분, 실익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력의 심각한 낭비는 물론이고 정부의 재정 사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무조건 손사래 칠 일은 아니다.

시도민의 염원도 컸다. 균형발전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타 지역에서 초광역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소 뒤늦게 특별광역연합이 추진됐고 시간에 쫓기는 것도 맞지만 시대적 흐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말로 극적인 반전 카드가 없는 것일까. 안타까운 시간만 흐른다.

광주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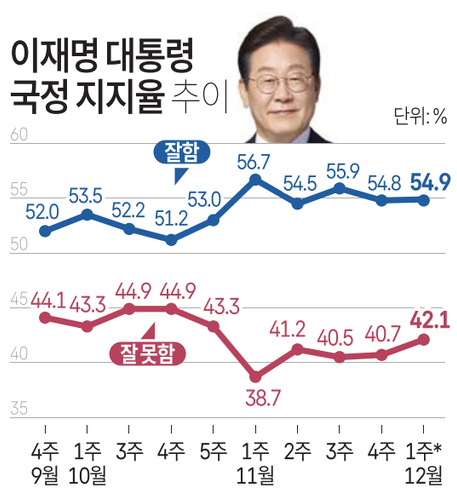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고 청년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 인구가 연간 1만명 이상 사라지고 있다. 광주시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47만5천명을 정점으로 줄어 올해 5월 기준 139만명대로 집계됐다. 2020년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는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그 폭이 가팔라졌다. 실제로 2024년 출생아는 6천명으로 1995년 대비 73% 급감했고, 같은 해 사망자 9천136명보다 3천명 이상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친다.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것도 걱정이다. 2023년 순유출은 9천1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8월까지 8천930명이 빠져나가 연말까지 1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전체 인구가 2050년에는 120만명대까지 떨어져 현재의 82%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통계 상의 지표라고 해도 충격적 수준이다. 눈 앞에 닥친 위기다. 지역 경쟁력이 추락하는 중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자는 늘어가고 있다.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핵심 노동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내수 위축, 세수 감소 등과 맞물려 성장 잠재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스럽게 최근 결혼이 점차 증가해 출산율 반등의 긍정적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으로 재편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결코 120만명대로 내려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붕괴의 신호가 된다는 얘기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 속에 10년 넘도록 유출이 이어지는 고착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인구가 사라지면 도시가 존재할 수 없다. 평범한 진리를 재차 새겨야 한다. 저출생과 고용, 돌봄, 주택, 교육 복지 등을 아우른 장기 로드맵까지 효과적인 대안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그래픽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지난주보다 0.1%포인트(p)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며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1.4%p 올랐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52.9%로 전주 대비 7.8%p 오르며 상승세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4.2%p 상승한 47.4%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도 2.7%p 오른 56.1%로 집계됐다. 광주·전라(71.9%)와 서울(47.5%), 인천·경기(56.8%)는 같은 기간 각각 6.6%p, 2.3%p, 1.6%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